민선 5기 1년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듣는다

"4대 국제행사, 전남 미래 유산 만들겠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23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선 5기 1년을 포함해 지난 7년동안 '전남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신념으로 도정을 운영해 왔다"며 "전남처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일수록 꿈을 꾸고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기 위해서는"'무엇이 부족한가를 보지 말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친환경농업과 해양바이오처럼 전남만의 독특한 자원을 활용하면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여수엑스포, 순천정원박람회 등 4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후손들에게 물려줄만한 유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1년만의 성과라기 보다는 7년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친환경농업을 우선 꼽을수 있겠다. 전남이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잡은 것은 전남만의 독특한 자원을 활용해 안전한 먹을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백신산업 등을 미래산업으로 발굴했고 은퇴자타운을 조성해 인구늘리기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성과라고 할만하다. F1 대회와 여수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는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4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후손들이 활용할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

친환경농업 메카 자리매김 큰 성과

F1 성공땐 모터산업 클러스터될 것

-F1대회 개최를 두고 지역사회가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면 내년 대회부터는 개최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열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 솔직히 F1은 한국에서는 유일한 '온리 원'이기 때문에 한 것이다. 한국과 전남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 브랜드가 될 수 있다. 일부 동부권 사회단체들의 반대에는 근시안적이 측면이 있다. 여수엑스포에는 12조원이 투자됐다. F1은 초기 시설비를 포함해 5000억원이 들었다.

F1이 성공하면 전남이 수제 자동차를 생산하는 모터산업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된다. 주변의 우려를 알고 있다. 힘들지만 수익구조를 찾는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할 생각이다. 정치권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한편 티켓 판매와 광고 스폰서십 확보 등 마케팅에 전력을 기울이고 운영비도 절감해 치르겠다.

-여수엑스포 개최가 1년이 남지 않았다. 성공개최에 자신있나. 박람회장 사후활용도 중요한데.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가 3각 축을 이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전주~순천간 고속도로가 4월에 완공되는 등 SOC확충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숙박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를 할때부터 사후활용을 생각해 영구 건축물을 줄였기 때문에 사후 활용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시설별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해상무대 등에서 공연을 상설화 해 사후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겠다. 장기적으로는 박람회장과 인근 지역을 남해안 선벨트의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호남고속철도 노선 결정 등 지역과 관련된 정부의 국책사업에 최근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는데. 현 정부의 지방정책을 어떻게 보나.

▲국책사업은 미래를 보고 결정돼야 한다. 특히 고속철도 등 SOC사업은 더욱 그렇다. 기존 노선을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호남고속철 정책은 제주와의 해저터널을 염두에 두지 않은 단견이다. 중앙집권국가에서는 지방정책이 중요한데 정부는 지방에 너무 무관심한 정책을 펴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사고 때문인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환경·의료·교육 등에서 삶의 질 하락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도 결국 수도권 중심의 정책 때문이다.

-정부가 J프로젝트 부지(간척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채 새만금에 J프로젝트와 유사한 개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호남 편가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 지적도 알고 있다.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농지를 타 용도로 전환한 것도 잘한 일이다. 새만금개발사업이 J프로젝트와 일부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개발방향이 다르다. 또 어차피 우리(J프로젝트)가 빠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방식대로 추진하면 된다. 다만 관광적자가 연 100억달러를 넘는 나라에서 J프로젝트 같은 관광개발 사업에 발목을 잡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간척지 양도양수만 해결된다면 바로 기공식이 가능하다.

-정부의 4대강사업에 앞서 영산강살리기사업을 강조해왔다. 4대강사업이 완공단계인데 미진하거나 아쉬운 점은 없나.

▲영산강살리기사업은 취임 직후인 2004년부터 절박한 필요성때문에 시작했다. 영산강은 하두둑이 축조된후 30년동안 퇴적물이 쌓여 강 모습을 잃었다. 홍수방어 수량확보,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영산강과 이곳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준설이 중요하다. 4대강사업이 막바지로 접어 들었는데 제대로 준설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 지속적인 준설을 위해 준설선 4척을 정기적으로 운항할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놓았다. 뱃길 복원과 관광·레저 활성화에 필수적인 영산호와 영암호 통선문 설치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점이다.

여수박람회장 인근 선벨트로 조성

호남고속철 등 미래 보고 결정해야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거나 장기적으로 대권에 꿈이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 나온다.

▲나도 들었다. 현장에서 만나는 도민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도민들이 나를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나 싶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배경을 생각해 보니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고 내가 민주당의 적자(嫡子)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기대감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싶다. 호남을 배제할 경우 흥행면에서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루머의 배경이 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총선에 나갈 생각은 전혀 없다. '전남의 운명을 바꾸겠다'는 선거공약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동안 역점을 두고 싶은 일은.

▲마무리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지는 않는다. 내가 떠나더라도 전남의 미래 먹을거리 사업은 남는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 전남만의 독특한 자원과 관련된 7대 연구소(생물의약, 나노 바이오 등) 설립에 공을 많이 들였다. 이제부터는 관련 기업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전남의 미래 먹을거리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민선 5기 1년 전남도에서는

2010.07.01 박준영 전남지사 취임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민선 5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박 지사는 취임사에서 "지금까지 무엇이 전남을 사람이 떠나는 땅으로 만들었고 무엇을 해야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고 분석했다"며 "민선 5기에는 그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는데 사용해 낙후를 번영으로 바꾸자"고 역설했다.

2010. 07.09. 전남도, 시·군 투자유치 총력 협약체결

전남도는 22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 2000개 유치,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총력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젊은층이 '떠나가는 전남'이 아니라 '돌아오는 전남'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치로, 시·군과 산하 사업소에도 목표량을 할당하는 등 총력을 쏟고 있다.

2010.09.08. 남해안 관광 활성화 선포식

전남도는 부산시·경남도와 공동으로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 선포식'을 갖고 남해안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및 세계적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뱃고동을 울렸다. 남해안을 세계적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남도, 부산시, 경남도가 공동으로 생태·역사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공동 개발·홍보하는 사업이다.

2010.10.22.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막

'세계 최대의 스피드 축제'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코리아 그랑프리가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사흘간 열렸다.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로 꼽히는 '모터스포츠의 꽃' F1 대회가 개시된 지 60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린 것이다.

2011.02.24. 수출 304억달러 돌파

전남이 지난해 304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09년 232억달러를 수출했던 것에 비해 30.6% 증가했고 증가율로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 7위에 해당한다. 전남의 최근 7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무려 35.1%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1.04.25.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

우정사업정보센터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서 첫 삽을 떴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15개(개별 이전하는 해양경찰학교 제외) 이전 기관 중 처음이었다.